현대미포조선이 2021년 인도한 50K PC선의 시운전 모습. /사진제공= HD한국조선해양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시아 선사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(PC선)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. 총 수주 금액은 1332억원이다.이번에 수주한 PC선 2척은 HD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돼 2027년 8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다.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98척(해양 설비 1기 포함), 113억3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 135억달러의 83.9%를 달성했다.선종별로는 LNG운반선 8척, PC선 34척, LPG·암모니아운반선 36척, 에탄운반선 1척,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2척, VLCC 6척, 탱커 3척, PCTC 2척, FSRU 1척, 해양 1기, 특수선 4척을 수주했다.